

대불·군산·명지녹산 3개 산단 잇는다... 조선업 AI 전환 가속

산업부, 특화 역량 연계방안 논의
제조데이터·AI 모델 등 공동 활용
설계·생산·품질관리 전주기 혁신
업계, 데이터 수집·처리 지원 요청

정부가 대형 조선소와 기자재 업체가 밀집한 국내 주요 조선 산업단지를 연계해 조선업의 인공지능 전환(AI)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파급효과가 큰 조선업 공급망 전반에 AI를 접목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지역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22일 목포 호텔현대에서 조선 업종을 주력으로 하는 3개 산업단지의 'MINI 얼라이언스 합동 간담회'를 열고, 조선업 인공지능 전환(M.AX) 추진 전략과 산단 간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선산업은 설계·소재부터 대·중·소형 조선소와 기자재, 협력업체가 긴밀히 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호텔현대 바이 라한 목포 루비홀에서 MINI 얼라이언스 간담회 이후 부대행사로 개최된 'M.AX 카라반' 현장을 방문해, 업계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산업부

결된 대표적인 공급망 산업이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각 지역 거점 산단의 강점을 상호 연결하는 구체적인 협력 체계를 모색했다.

현재 국내 주요 조선 산단은 기능별로

특화되어 있다. ▲전남 대불산단은 대형 조선소와 중소 협력업체가 집적된 국내 최대 해양 클러스터이며, ▲전북 군산산단은 중·소형 선박 및 해양 모빌리티 제조 중심, ▲부산 명지녹산산단은 국내 조선

기자재 업체의 약 60%가 밀집해 있는 거점이다.

이들 3개 산단 얼라이언스는 개별적인 과제 수행에서 벗어나, 제조 데이터를 통합하고 지식을 연결하는 '전주기 AI 활용 체계'를 공동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간담회에서는 산단별 구체적인 M.AX 연계 방안도 공유됐다. 대불산단은 제조 데이터와 AI모델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선 분야 공통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시했고, 명지녹산산단은 설계·제조·관리를 효율화하는 조선업 특화 AI 검색 엔진 개발 및 확산 방안을, 군산산단은 설계 시뮬레이션 및 제조 품질관리 AI 모델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AI 모델의 성능과 확산은 결국 양질의 데이터 확보에 달려 있다는 점과, 조선 분야 공통의 데이터 수집, 전송, 처리 전 과정에 대한 인프라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

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조선산업은 수많은 기업과 공정이 맞물려 돌아가는 핵심 공급망이자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산업"이라며 "세 거점 산단이 현장을 중심으로 데이터와 모델을 함께 만들고 활용하는 'AI 조선 공급망'을 구축해 K-조선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5급3특 지역성장의 실질적인 기반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부대행사로 AI 전환을 희망하는 제조기업과 AI 솔루션 공급기업을 매칭하는 'M.AX 카라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현장에는 14개 AI 공급업체와 50여 명의 제조기업 관계자가 참여해 AI 기술 도입 과정에서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활발한 기술 상담과 매칭을 이어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SM그룹 '총수 딸 사익편취' 심의 착수

공정위, 계열사 6곳 심사보고서 송부
딸 100% 소유사에 알짜사업 제공 혐의
총수 일가 회사에 182억 자금지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SM그룹 소속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 회사에 유망한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포착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행위가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물론 법인과 개인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기업집단 SM 소속 6개 계열사(SMAMC투자대부·삼환기업·SM상선·SM하이플러스·에이치엔이앤씨·삼라미다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장장 격)를 피심인들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해 심의절차가 개시됐다. 2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SM그룹 계열사들은 총수 딸이 100% 지분을 소유한 에이치엔이앤씨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부를 부당하게 이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SMAMC투자대부와 삼환기업은 지난 2022년 12월경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던 천안 성정동 아파트 개발사업 시행



SM상선 소속 컨테이너선.

/SM그룹

기회를 에이치엔이앤씨에 통째로 넘겼다. 에이치엔이앤씨는 이 알짜 사업을 통해 분양매출액 1283억 원, 분양이익 365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아울러 SM상선과 SM하이플러스는 에이치엔이앤씨가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상금리보다 20~30%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어준 혐의를 받는다. SM상선은 총수와 총수의 아들 소유 회사인 삼라미다스에도 초저리로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심사관이 산정한 이 사건 부당 자금 지원 금액은 에이치엔이앤씨 17.5억 원, 삼라미다스 164억 원 등 총 182억 원이다.

공정위 사무처는 심사보고서를 통해 피

심인들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 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인 및 관련 개인에 대한 고발 의견을 명시했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며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스마트팜 청년인재 1000여명 배출

청년창업 보육센터 7기 통합 수료식
전국 4개 혁신밸리서 실습교육 운영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가 올해 상반기까지 총 1000명 이상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2일 수료식 현장을 찾아 예비 청년 농업인들의 성과를 살피고 이들의 새출발을 응원했다.

2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미령 장관은 충남 천안소노벨에서 열린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통합 수료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소통의 시간을 갖고, 교육 과정을 마친 청년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송 장관은 보육센터별 우수성과 전시 부스를 둘러보고 청년 농업인들의 영농 성과도 점검했다. 또 기념식에서 7기 수료생들에게 직접 수료증을 수여하고, 보육

센터의 새로운 이정표인 '누적 수료생 1000명 달성'을 기념하는 축하행사에도 자리를 함께했다.

그는 "스마트팜 보육센터 누적 수료생 1000명 달성은 청년인재 육성과 스마트농업 확산 정책이 만들어 낸 의미있는 성과"라며, "1000명의 수료생은 대한민국 농업이 데이터와 기술 기반의 미래산업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말했다.

이 시설은 스마트팜 창농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습 중심의 장기 교육을 제공하는 전문보육기관이다. 전북 김제·전남 고흥·경북 상주·경남 밀양 전국 4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운영되고 있다. 2018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총 1412명을 선발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부산항만공사, 외래종의 유입차단 총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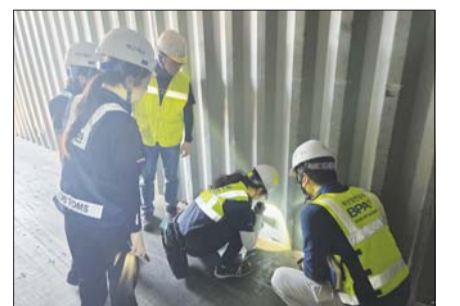
북항·신항서 수입 공컨테이너 점검

부산항만공사가 최근 '2026년 상반기 부산항 수입 공(空) 컨테이너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해외에서 반입되는 공 컨테이너를 통한 유해 외래생물(붉은불개미 등)의 국내유입 예방·안전한 항만 물류환경 조성에 목적을 뒀다.

22일 공사에 따르면 실태조사는 지난 11~19일 기간 북항신선대부두(BPT) 및 신항 4부두(HPNT)에서 진행됐다. 부산항만공사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세관,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국립생태원, 컨테이너부두 운영사 등과 합동조사를 실시했다.

점검반은 공 컨테이너 내부의 생물 또는 사체 유무 등 유해 외래생물의 서식 또는 존재 가능성이 있는 요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또 내외부의 청결 상태(청소·세척)와 손상 여부(수리·교환)를 확인하는 등 불량 공컨테이너 발생 현황을 항목별로 살펴봤다.

조사 결과는 수입 공컨테이너 관리 수



부산항만공사 등 합동조사단이 '부산항 수입 공(空) 컨테이너'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

준 향상을 위해 관련기관 및 부두 운영사·선사·컨·수리세척 업체 등에 공유된다. 지난 2018년부터 실시해 온 실태조사의 누적된 조사자료와 대조·분석해, 향후 수입용 공 컨테이너 간이검사 방법의 개선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관련기관 및 업계 등과 긴밀히 협력해, 유해 외래생물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불량 공컨테이너를 최소화하겠다"며 "신뢰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항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농어촌공사, AI 활용 농어촌 미래 서비스 발굴

디지털 혁신 공모전 참가작 접수
서비스 개발·영상콘텐츠 2개 부문
18세 이상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한국농어촌공사가 인공지능(AI)·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서비스 및 콘텐츠 발굴을 추진한다.

공사는 '제3회 KRC(한국농어촌공사) 인공지능 디지털 혁신 공모전' 참가작을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다음 달 31일까지다.

이 공모전은 AI와 공공데이터를 접목한 실용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발굴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농어촌의 미래상을 제시

하는 데 목적을 둔다.

공사는 2024년부터 디지털 혁신 공모전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참가 대상과 상금 규모를 확대했다. 참가 대상은 18세 이상 국민으로 개인 또는 최대 4명으로 구성된 팀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서비스 개발과 영상콘텐츠 두 부문이다. 서비스 개발 부문은 공공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웹·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대상이다. 영상콘텐츠 부문은 '인공지능으로 그리는 농어촌의 미래'를 주제로 1분 이내의 영상을 제작해 제출하면 된다.

총 상금은 1500만 원 규모다. 서비스 개

발 부문에서 최우수상 500만 원, 우수상 250만 원이 수여된다. 영상콘텐츠 부문은 최우수상 200만 원, 우수상 100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참가 희망자는 농어촌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공사는 서면심사와 온라인 국민투표, 발표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최종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사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AI와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국민 참여형 디지털 혁신 사례를 확대하고, 농어촌 현안 해결과 미래 서비스 개발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